

결연한 표정으로 경제 37번·개혁 33번 외쳐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국민 협조” 호소

24분간 국민 29차례·청년 14차례 언급도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10시 붉은색 재킷에 회색 정장 바지를 입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 들어섰고,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어조를 유지하며 시종 결연한 표정으로 담화문을 읽어내려갔다.

박 대통령은 과거 결연한 의지를 밝히거나 중요한 행사에 붉은 색 재킷에 정장 바지 차림을 자주 입었다. '진투복'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박 대통령의 대표적 패션이다.

이날 대국민담화의 핵심 키워드는 '개혁'과 '경제'였다. 박 대통령은 24분에 걸쳐 이뤄진 대국민담화에서 '경제' 단어는 모두 37차례, '개혁'은 33차례 사용했다. 또 29차례에 걸쳐 '국민'이란 말을,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14차례에 걸쳐 '청년'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갈 경제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경제 주체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렸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당부했다.

4대 구조개혁 등 담화의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손을 올리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금융이 경제의 싹틔움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도록 해야 한다”고 강

조할 때에는 목소리 톤이 다소 올라가기도 했다.

이날 담화 현장에는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홍렬 경호실장, 수석비서관 등 120여명이 배석했다.

수석 비서관들이 먼저 브리핑룸에 들어왔고, 뒤이어 이병기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 김성우 홍보수석, 전광삼 청와대 춘추관장 등이 들어와 박 대통령 입장을 기다렸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배석하지 않았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기자회견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담화문 낭독 이후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이후 춘추관 기자실에 들러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인사를 했다. 박 대통령의 기자실 방문은 3번째로,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12일 신

년 구상 발표 및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 뒤, 그리고 지난해 1월6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실을 찾은 바 있다.

한편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4대 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에서 26개 과제를 선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투복 패션’ 담화

새누리 “국가미래, 절박한 심정으로 표현”...새정치 “사과는 없고 독백·훈시”

담화 내용 여야 엇갈린 반응

박근혜 대통령의 6일 대국민 담화와 관련,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분야의 개혁을 강조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의 뜻을 나타내면서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절체절명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

라고 평가하면서 “대통령이 주도해서 할 개혁이라기보다, 정치권 정부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같이 개혁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며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국정 운영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적기에 올바른 국정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사과는 없고 ‘독백’과 ‘훈시’로 끝나 참모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정말 국민들과 소통되지 않는 불통의 벽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 예산정책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박 대통령의 담화에는 경제 실패에 대한 성찰도 반성도, 또 정확한 진단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도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이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마디 사과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대국민 담화는 뒷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훈시의 자리였다”며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빅딜’ 제안 성사 가능성 낮아

〈권역별 비례-국민경선〉

새누리 반대...정개특위로 넘겨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일괄 타결’의 불씨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공’을 넘겼지만 새정치연합에서는 “논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적극적인 모습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김 대표의 부정적 반응이 있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혁신 의지가 있다면 권역별 비례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던 여야 대표가 만나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의 의뢰도 “대표나 당 차원에서 불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라는 건 하나마나한 소리 아닌가. 별로

실효성 있는 말로 안 들린다”면서 “정개특위에 협상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의원정수 확대 반대’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반대 논리로 삼자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에서도 제도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구 개편 문제에 대해선 일괄 언급을 하지 않으며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의 제안과 관련, “그동안 깊이 생각해오지 못한 부분인데, 그걸 갖고 성과를 내야 하니 걱정”이라고 토론했다.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혁신위 일각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빅딜 할 대상이 아니다”는 불만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천정배, 국회서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무소속 천정배(광주 서구) 국회의원은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불평등한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선거구 및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최근의 정치개혁 논의의 여러 문제점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정치의 왜곡된 대의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도를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바꾸는 것이 해답”이라면서 “그러나, 선거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거대 양당이 먼저 기득권을 버리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

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원 소장은 “다수제 민주주의의 공간이 되고 있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선거

제도는 전체 투표수의 절반에 가까운 사표를 조래하여 투표권의 평등조건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유발해 국민들의 효과적인 정치참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치시스템을 기존의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걸 9일 광주서 8·15 자전거국토순례

5박6일간 임진각까지 순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광복 70주년 8·15 자전거국토순례’가 오는 9일 오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앞에서 시작된다. 이번 자전거국토순례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시작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전북 정읍), 월남 이상재 선생 생가(충남 서천), 김좌진 장군 유적지(충남 홍

성), 윤봉길 의사 유적지(충남 예산), 안중근 공원(경기도 부천), 김포 독립운동기념관, 임진각(경기도 파주)까지 전국의 유명한 항일

독립유적지를 순회하며 총 5박6일 동안 이어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1장
(초회 공제로 5만원 이하 - 1장, 10만원 이하 - 2장, 10만원 이상 -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상세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